

IS, 군산 미 공군기지 테러 '선동'

(이슬람국가)

위성지도·좌표 공개... 도민 불안감 확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가 군산 미공군 기지 등에 테러를 가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드러나 도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 더 이상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다.

20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IS는 최근 자체 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로 입수한 전 세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국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해의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십자군과 싸우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며 조직원들에게 테러를 선동했다.

IS는 우리나라의 경우 군산 미공군 기지와 경기 오산 미공군 기지의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우리나라에 미 공군 기지가 여러 곳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곳을 꼽는다면 오산 기지와 군산 기지를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우선 오산에는 주한 미 공군을 통할하는 미 7공군 사령부가 위치해있다. 이곳에는 미군의 U2 고공 정찰기와

지상 공격기 A10, 그리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 미사일로 배치돼 있다.

또한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비롯,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군용기를 통제하는 방공통제소도 모두 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군산 공군 기지는 주한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이 배치된 기지다. 주한미군은 이 곳을 'USA 캘리포니아 울프팩(Wolf Pack)'으로 부른다.

현재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에 빌려준 공여지는 옥서일원 군산공항공과 아파치헬기부대 이전부지, 여기에 도심 한복판인 해망동 유희저장시설 등을 포함하면 약 11㎢(339만평) 넓이다.

이 지역 한 곳이라도 테러를 당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우리나라와 미국 양측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처럼 한미 연합 공군 전력의 핵심이 오산과 군산에 밀집해 있는 만큼 실제 테러가 감행될 경우 피해는 상상 초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군산 주한 미공군 기지는 출입 조치를 강화하고 부대 내 보안 조치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강력한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여름 기상전망은 강수량이 평년 수준과 비슷하고 태풍발생 횟수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열대성 현상으로 인한 강력한 태풍과 국지성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설치로 시 농업관련 부서는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

체제로 전환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해 사전예방 활동과 응급복구 및 신속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유사시 빠른 복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해 총괄부서인 시민안전담당관실과 소방서, 지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농업재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농가 대상 한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관리요령, 폭염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리지도,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등에 집중홍보와 지도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20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주시, 인권보호정책 밑그림 그린다

인권위 출범...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로 새로워진다.

전주시는 20일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현장 활동가와 시의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인권위원회 구축·운영은 조직 내 인권팀 신설과 함께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권도시 전주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이다.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과 여성, 아동 등 인권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센터 추진방향 등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갖추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권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등에 대한 개선권고는 물론, 전주시 행정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총괄, 인권쟁점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를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 추진 원년으로 삼아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 전담팀을 신설, 인권보호체계 정립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증진 시책 등을 발굴해왔다. 또 인권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전·사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인권팀과 인권위원회 등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이 완료된 만큼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단계로 전주시 인권센터 개소와 인권보호 관련 조사·발굴 등 인권도시 전주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김영재 기자

귀금속 훔친 30대 여성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B(57)씨의 금은방에서 총 10회에 걸쳐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B씨와 귀금속 구매 상담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과 주머니에 숨기는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쳐낸 것으로 밝혀졌다.

매장에서 귀금속이 계속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생활비가 부담됐다"며 "훔친 귀금속은 팔아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채팅 여성 속여 사기 친 10대 청소년 구속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개인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챈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주대진경찰서는 20일 친구만들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개인정보(사기 등)로 김모(18)군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 27분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20·여)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군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커플인증을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터넷에서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찾아 자신의 프로필로 사용했으며, 김군의 화술에 넘어간 여성들은 의심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안진수 기자

교도소 출소한 달만에 또 절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0일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양모(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께 군산시 경장동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월부터 6월초까지 군산시에 주택 15곳에 침입해 총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주택 문을 두드려 보거나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인적이 없으면 집안으로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차량 번호판 훔쳐 강도 모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강도를 모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혐의(강도예비·음모)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일에도 마스크, 장갑, 드라이버, 결박용 테이프 등을 구입하는 등 강도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했다. /안진수 기자

1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양시호 부장판사)는 십억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된 배모씨(36)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8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실 불법 스포츠포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이트는 국내의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 등을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송금액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충전, 경기 결과 등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박금액은 총 29억83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도박 액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증거 은폐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